강진군, 청소년과 함께한 '드림업 페스티벌' 성료

강진군이 청소년들의 미래 역량 강화와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축제를 열어 큰 호응을 얻었다.

군은 지난 11일 오감통 야외공연장에서 관내 청소년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드림업(Dream Up) 페스티벌 & 진로체험 팝업 한마당'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강진군청소년수련관과 강진진로체험지원센터가 협력해 마련한 것으로, 청소년들이 또래 친구들과 소통하며 지역사회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다양한 진로와 미래 기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 열린 페스티벌에 이어 진행된 세 번째 행사로,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체험과 실질적인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AI 프로그램 부스가 청소년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참가자들은 데이터 분석 로봇 체험, 사이버파이 만보기, 스마트 로봇 레이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최신 과학기술을 직접 체험하며 창의융합 역량을 키웠다.

이와 함께 수련관 우수 프로그램과 진로 마춤형 체험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마련됐다.

지역주민 역량강화교육을 통해 양성된 전문 강사들이 드론축구 체험과 우리집 안전구호 만들기를 진행해 청소년들의 흥미를 높이는 한편, 안전의식과 위기 대처 능력을 기르는 기회를 제공했다.

강진진로체험지원센터는 빼빼로 만들기, 귤모찌 만들기, 달고나 체험, 파우치 키링 만들기 등 다양한 실습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소년들이 직접 만들고 경험하며 자신의 적성과 관심 분야를 탐색할 수 있도록 했다.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선보이는 공연도 이어졌다.

/전운재 기자



'강진군 오감통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드림업 페스티벌 & 진로체험 팝업 한마당' 모습 /강진군 기획홍보실 제공

무안군, 민선9기 6개 분야 80개 공약 확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은 민선9기 군정 비전인 '오로지 군민, 대전환 무안'을 실현하기 위한 6개 분야 80개 공약을 확정하고 실천계획을 군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공약은 ▲도약하는 경제수도 12건 ▲함께 누리는 균형발전 14건 ▲촘촘하고 따뜻한 복지 19건 ▲머물고 싶은 문화관광 20건 ▲선도하는 미래농업 11건 ▲신뢰받는 소통행정 4건이다. 공약사업의 총 사업비는 약 2조 9,214억 원 규모다.

주요 공약에는 '무안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단 지정 추진', '국가 농업AX플랫폼 민간자본 유치', '광주 민간공항 선(先)이전', '죽산IC 신설', '전남갯벌생명관 건립', '신도시 노인복지회관 건립' 등이 포함됐다.

군은 에너지와 농업 분야 인공지능 전환(AX) 등 미래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신도시 교통 여건 개선과 체류형 관광, 생애주기별 복지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서용운 기자

목포 고하도, 어촌뉴딜3.0 공모 선정



목포 고하도 어촌뉴딜3.0 공모사업 대상지 선정 관련 사진 /목포 시청 제공

목포시(시장 강성휘)는 고하도가 해양수산부 주관 '2027년 어촌뉴딜 3.0(어촌회복형)' 공모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유입과 지역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100억 원(국비 70억 원, 도비 9억 원, 시비 21억 원)이 투입된다.

평가에서는 고하도만의 어촌 자원과 사업 실현 가능성, 주민 참여도, 목포시의 추진 의지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사업을 통해 관광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마을안길 포장, 마을연결로 개설, 태양광 설치, 제방 보강, 선착장 연장 및 항구 준설 등을 추진한다.

소규모 직판장 조성과 주민역량 교육, 공동체 프로그램도 지원해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체류형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박성태 기자

함평군, 2026년 '정신건강의 날' 기념 이벤트 성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보건소는 법정기념일인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지난달부터 추진한 다양한 이벤트가 큰 호응 속에 최근 성황리 마무리됐다고 15일 밝혔다.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10월 9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정신건강 주간'으로 지정, '마주해요, 정신건강은 마주하면서 시작합니다'를 주제로 군민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했다. 첫 번째로 정신건강 주간에는 관내 주요 거점에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경로당과 마을회관으로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했으며,

두 번째로 12일부터 31일까지 정신과 신체 건강 증진을 위한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WalkOn)'을 활용한 이벤트 '정신건강의 날 기념 걷기 챌린지'를 운영하여, 목표 달성자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기념품을 증정했다. 또한 정신질환 편견 해소와 생명 존중, 마음 건강 인식 개선 캠페인을 함평천지전통시장과 버스터미널, 학다리고등학교 등 다중이용장소에서 실시해 생명존중 문화 확산과 군민의 마음 건강 관리를 독려했다.

/이문수 기자

영암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전국 우수 임대사업소 선정

영암군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년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평가'에서 전국 우수 임대사업소로 선정돼 농촌진흥청장 표창을 받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48개 지방자치단체의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대상으로 사업 성과, 인력·조직 운영, 정책 참여와 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우수 기관을 선정했다.

영암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농업인 7,460명에게 농기계 8,702건을 임대해 8,635ha의 농작업을 지원하는 등 운영 전반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현재 본소와 서부·북부·동부 등 4개 권역에서 44종 821대의 농기계를 운영하며, 농업인들이 필요한 시기에 농기계를 빌려 농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박선미 영암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인들이 필요한 농기계를 제때 이용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소를 운영해 왔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농기계를 빌려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철 기자

신안군, 통합돌봄 전담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신안군(군수 김태성)은 지난 13일 신안군 가족센터에서 14개 읍·면 통합돌봄 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의 업무 이해도와 돌봄서비스 연계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통합돌봄 업무 이해, 의료·요양 서비스 연계, 고령층 맞춤 영양관리, 우수사례 공유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을 바탕으로 실무 대응 방법을 익히고, 낙도 주민과 청각장애인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를 공유했다.

이를 통해 읍·면 담당자들은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업무 능력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박성태 기자

